일본의 화훼산업과 기술개발 진흥정책

유 지 은 *

1. 들어가며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생산비용 증가와 고정된 소비인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훼농가는 2012년 9,450호이었던 반면 지속적인 감소세로 2018년 6,198호까지 약 3분의2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화훼농가를 살리고 꽃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소비 캠페인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화훼는 일부 용도로만 소비되는 사치재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화훼 소비국[1]으로 최신 기술을 응용한 생산기술 및 품질 유지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 주요 세션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 역시 줄어드는 꽃, 나무 소비와 더불어 염가에 수입되는 외국산 화훼로 인해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화훼 수요 전체를 확대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일본산 꽃의 아름다움과 품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수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수요 확대를 위한 일본의 화훼산업 진흥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방 정부 주도의 시책 간 협력·연계구조 추진이다. 두 번째는 연례 통계조사를 통해 국내 농가 및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집단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황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꽃과 나무를 생산하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youje8@kistep.re.kr).**
본고는 일본 농림수산성 및 유관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636.html) (검색일: 2020.1.3.)

개화기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동시에 색과 품질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약품, 분재 소독기술 개발을 위한 R&D조직과 프로젝트를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내에서 재배면적 대비 고부가가치산업인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집약적 차세대 농업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참고사례로서 일본의 화훼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 화훼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전달하여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수요확대, 소비 진작을 위한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구분하여 보다 면밀하게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 화훼산업 일반 현황

2.1. 화훼의 정의 및 구분

일본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화훼'는 '관상용으로 제공되는 식물'[2]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성(2018)의 분류에 따르면 화훼는 절화류, 화목류, 구안류, 화단용 식물류, 잔디류, 지피식물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절화류는 국화, 장미, 카네이션 등 절화, 야자나뭇잎 등 절엽(切葉), 벚꽃 등 절지(切枝)식물을 의미한다. 화목류는 철쭉 등 정원수로 쓰이는 목본성 식물을 포함하나, 화분류로 생산된 화목은 제외된다. 구안류는 튤립, 백합 등이 있으며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된다. 화단용 식물류는 팬지, 페튜니아 등이 있다. 잔디류는 조원(造園) 등을 위해 재배되는 식물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피식물류는 조릿대, 덩굴 등 지면과 벽면을 덮는 식물류를 의미한다.

2.2.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현황

2017년 기준 일본의 화훼류 생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본 자료는 3절에서 자세히 설명된 '일본 화훼산업 진흥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 화훼 등 생산현황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화훼는 '원예작물의 한 부류로 꽃, 줄기, 잎, 열매 등 관상을 목적으로 심어지는 모든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표 1> 화훼류 생산 일반현황 (2017년 기준)

구 분	재배면적 (ha)		출하량 (천송이, ha(꽃, 잔디류))		산출액 (억 엔)		재배농가 (호)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합계	26,834	98%	-	-	3,687	97%	13,387	-
절화류	14,460	99%	3,704,000	98%	2,078	97%	…	-
화목류	3,624	96%	70,299	92%	206	96%	8,866	89%
화분류	1,643	98%	221,200	98%	971	100%	…	-
구안류	304	96%	91,100	95%	18	99%	…	-
화단용식물류	1,401	97%	609,600	94%	306	96%	…	-
잔디류	5,312	96%	4,273	104%	75	95%	3,925	90%
지피식물류	91	76%	21,310	86%	33	96%	596	95%

주 1) 화분류, 화분류, 화단용 식물류, 구안류에 대해서는 "화분 생산 출하통계" 및 "생산농업소득통계" 참조하였으며, 화목류, 잔디, 지피식물류에 대해서는 "화목 등 생산상황조사"를 참조함.
2) 꽃 생산 출하 통계는 2007년부터 월 기준으로 통일. 재배농가의 수 및 꽃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수량은 조사하고 있지 않음.
3) 화분류, 화분류, 화분류, 구안류의 산출액에 대해서는 도도부현별로 산출액이 대략 1억 엔 이상의 품목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품목은 '기타'로서 일괄 추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도도부현 마다 파악하고 있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산출액의 합계치는 해당 품목을 추계하고 있는 도도부현만의 합계로 추산하고 있음.
4) 잔디의 출하 수량의 단위는 ha임.
5) 절화류의 산출액은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절화류 수치에 기타 화류(잔디 제외)를 더하여 추산함.
6) 화단용 식물류의 재배면적 및 출하수량은 화단용 식물류, 산출액은 화목류임.
7) 재배면적, 출하수량 및 산출액은 반올림하여 각 구분의 종류별 합계 또는 총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재배 농가수의 합계치는 화목류, 잔디, 지피식물류만을 합계함.
9) 화목류, 잔디 및 지피식물류의 산출액은 2007년산까지는 생산액, 2008년산 이후에는 산출액을 게재하고 있어 비교 시 주의 필요함.
10) "…"는 결측치, "0"는 단위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2017년 기준 일본 화훼 총 재배면적은 2만 6,834ha이며, 총 산출액은 3,687억 엔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화훼 산출액과 재배면적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젊은 농업인들의 참여, 선물이나 관상용, 헌화용 등 꾸준한 수요로 화훼산업은 여전히 일본 농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총 화훼 재배면적은 2016년 27,370ha 대비 약 2% 감소하였으며, 산출액은 2016년 3,797억 엔 대비 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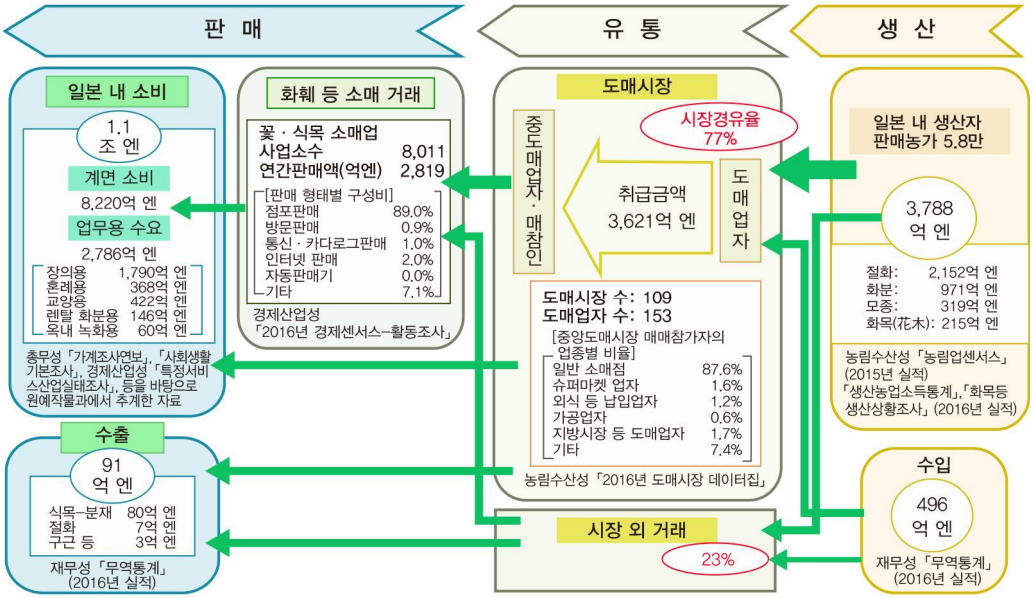
그 중 특징적인 점은 절화류의 재배면적 및 산출액이 다른 종류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절화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9%인 14,460ha, 산출액은 2,078억 엔(56%)으로 타 화훼류에 비해 감소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절화류의 대표 품종은 국화로, 장례식 등 업무용 수요가 꾸준하고 많은 편이며 전체 산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훼산업의

정체에도 국화 등 절화류의 수요-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징적인 점은 잔디류와 지피식물류의 눈에 띄는 감소세이다. 잔디류의 재배면적은 5,312ha로 전년대비 4% 감소했고, 산출액은 75억 엔으로 전년대비 5% 감소했다. 더불어 재배농가는 3,925호로 전년대비 10% 정도 감소했다. 일본의 잔디류는 유럽, 중국, 우리나라 등 국외시장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생산단가 상승과 중국산 잔디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감소세를 겪어 전년대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피식물류의 재배면적은 91ha로 전년대비 24%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농지 당 생산 집약도가 높아지고 판매가격이 다소 상승하여 산출액은 33억 엔으로 전년대비 4% 정도 감소했다. 다른 종류의 재배농가 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화목류, 잔디류 재배농가가 약 10% 정도 크게 감소한 반면, 지피식물류의 재배농가는 세 종류 중 가장 소폭인 5% 감소했다.

다음으로 일본 화훼산업의 생산·유통·판매구조를 살펴보자. <그림 1>은 2018년 농림수산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구조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2017년 기준 일본의 화훼 수급구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여전히 국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 화훼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내 농가의 화훼 생산액은 3,788억 엔으로 수입 생산량인 496억 엔의 약 7.6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생산·유통비용이 저렴한 중국 화훼가 공격적인 태세로 한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 각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감소세는 있지만 일본 내 양질의 화훼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Kati(2018)에 따르면 일본산 절화류 중 인기가 가장 많은 3종인 국화는 일본 내에서 15억 그루 출하된 반면, 수입산 국화는 3.4억 그루, 장미는 일본 내 2.5억 그루인 반면 수입 장미는 0.6억 그루 출하되었다. 장례, 혼례, 교양 등 의례용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품종에서도 여전히 일본산 화훼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카네이션의 경우 수입 카네이션 출하량(3.7억 그루)이 국내 카네이션 출하량(2.4억 그루)보다 약 1.3억 그루 더 많다. 이는 카네이션의 주요 수입국인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케냐 등의 강세와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구조의 개선, 국내 신수요의 창출,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국내 품종의 경쟁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구조



주: 조사시기, 표본 등이 상이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작성된 자료임. 일부 2016년 자료도 포함됨.
자료: Kati(2018)에서 재인용. 월본은 일본 농림수산성(2018). 「화훼 현황에 대하여」 참조.

두 번째로는 시장 외 거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화훼 도매시장은 대부분 경매를 통해 가격을 책정한다. 이에 따라 날씨, 계절 등 기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여타 농산물보다 더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화훼량이 23%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시장 외 거래의 주요 채널은 웹 거래로 농가 직거래, 희귀 품종에 대한 직거래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개인소비 시장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일본 인구는 약 1억 2,680만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구 1인당 연간 화훼 소비량이 약 6,843엔에 이른다. 장례용 등 일반적인 업무용 수요를 배제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화훼 소비금액이 약 1만 1,906원(농림축산식품부, 2018)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약 6배 정도 개인수요 규모가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수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생산, 수출입 규모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고, 더불어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현황을 바탕으로 일본 화훼산업의 현주소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훼의 대부분 품종은 일본 내 생산이지만 수입 규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품종에 있어서는 수입 규모가 이미 국내 생산을 압도한 바 있다. 이는 장례, 혼례 등 전통적으로 꽃을 사용하던 행사의 소비규모가 점점 현실화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위축되면서 생산 및 유통 단가가 수요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은 탄탄한 편이지만, 연간 추세로 살펴보았을 때, 소비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국내 생산과 유통 효율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적으로 일본이 소매 및 직거래를 위축시키는 포장, 유통 등을 핵심 비용 요소로 보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일 것이다.

3. 일본 화훼산업 진흥정책

일본의 화훼산업 진흥정책은 (약칭)'화훼진흥법' 제정을 필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는 화훼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지방 정부와 농가에 대해서는 세계 대회 지원, 상금, 예산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유인을 마련하고 있다.

3.1. 「화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102호)은 2014년 6월 제186회 정기 국회에서 화훼산업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년 12월 1일에 시행된 바 있다. 화훼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7억 5,100만 엔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화훼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정부 시책의 주안점은 1) 일본산 꽃 품종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2) 꽃 생산-유통-활용 및 소비 관련 업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요에 맞춘 생산·공급 체제를 재정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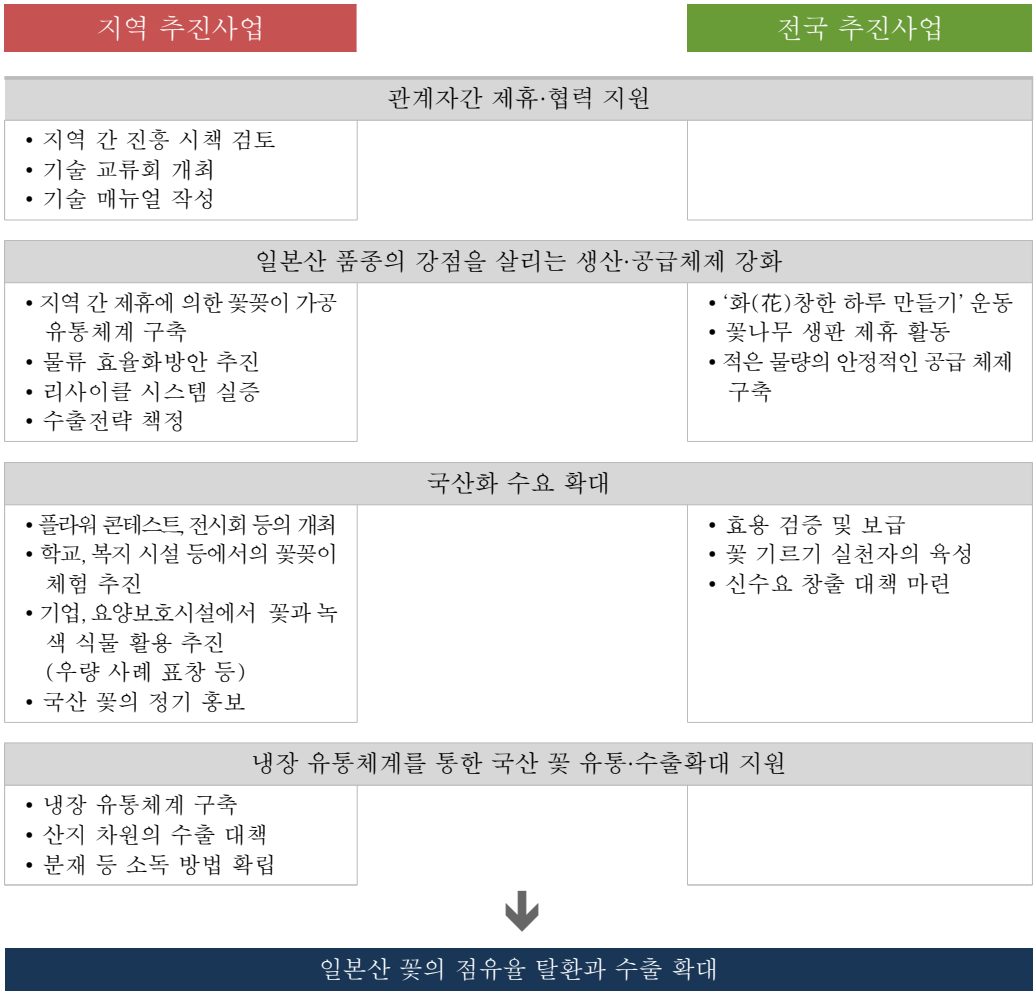
강화하고 물류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 확대방안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수요 모두를 확대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모를 키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트럭 운전기사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물류비가 급등하거나 수송 수단의 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상품훼손 문제가 심각한 품목과 품종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선한 고품질의 화훼상품을 배달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궁극적으로 일본산 화훼의 산출액을 2013년 기준 3,785억 엔에서 2020년까지 5,000억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일본 내 화훼산업의 입지를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틀 하에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부수적으로 일본 정부는 '화훼산업 진흥조사', '물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3.2.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

2014년부터 추진된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은 예산 규모 7억 200만 엔의 대규모 농업진흥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47도도부현에서 화훼 업계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되었으며, 지역 간 협력사업, 생산·공급 체제의 강화, 지역별 화훼 수요 확대정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전국의 생산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유통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제휴에 의한 꽃꽂이 가공 유통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앙 정부는 적은 물량의 소매시장에도 수요규모와 납기에 따라 생산과 재배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관리·감독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지 조성, 지역 간 제휴, 분재 등을 사전에 격리 재배하는 실증연구,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예산 책정과 동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협의회, 민간단체 등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중소규모의 농가와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 이후에는 중앙 정부가 꽃 기르기 인재를 육성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 해당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을 한다. 아오모리 현, 아이치 현 등 모범사례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플라워 콘테스트, 전시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다.

<그림 2> 일본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 추진전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은 일본 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 정부의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은 보다 상향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지원 아래 지역 간 협업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한다. 이런 시책은 생산지역과 수요지역 간의 유통 기반시설 마련에도 예산절감 등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산지 간 연계직송 등의 한계가 있어 도매시장과 대형업체에만 의존했던 시장구조를 서서히 탈피하여 일본 내 꽃 소비문화를 다시금 부흥 시키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더불어 특정 수요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재활용 문제, 품질유지 문제, 소독 등을 국가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한 세부사업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기본적으로 동 사업은 지역 간 협업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 협의체는 국산 화훼의 수출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시하고, 기술 교류회 등을 통해 지역 간 생산 격차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표 2> 지역별 추진사업 (개요)

사업내용 / 지역	연계 지원		생산·공급체제 강화				국산 꽃수요 확대				수출확대 지원	
	협의회 운영	기술 교류 지원	유통 거점 정비	국내외 공급 체제 재정비	물류 효율화	자재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꽃꽂이 홍보	꽃 육성 체험 추진	기업, 요양 시설 녹색화	산지 직송 수출 전략	소독 기술 혁신
실시현수	**47**	**14**	**1**	**8**	**5**	**5**	**46**	**7**	**46**	**3**	**1**	**3**
홋카이도	O	O					O		O			
아오모리현	O		O				O		O			
이와테현	O				O		O		O			
미야기현	O	O				O	O		O			
아키타현	O	O					O	O	O			
야마가타현	O	O					O		O		O	
후쿠시마현	O	O					O		O			
이바라키현	O						O		O			
토치기현	O						O		O			
군마현	O						O		O			
사이타마현	O						O		O			
치바현	O								O			
도쿄도	O	O					O	O	O			
카나가와현	O						O		O			
야마나시현	O						O		O			
나가노현	O	O					O	O	O			
시즈오카현	O	O					O		O	O		
니가타현	O			O			O	O	O			
토야마현	O				O		O		O			
이시카와현	O						O		O			
후쿠이현	O				O		O		O			
기후현	O			O			O	O	O			O

(계속)

사업내용 / 지역	연계 지원		생산·공급체제 강화				국산 꽃수요 확대				수출확대 지원	
	협의회 운영	기술 교류 지원	유통 거점 정비	국내외 공급 체제 재정비	물류 효율화	자재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꽃꽂이 홍보	꽃 육성 체험 추진	기업, 요양 시설 녹색화	산지 직송 수출 전략	소독 기술 혁신
아이치현	○			○	○	○	○	○	○	○		
미에현	○						○		○			
시가현	○						○		○			
쿄토부	○						○		○			
오사카부	○					○	○		○			
효고현	○						○		○			
나라현	○						○		○			○
와카야마현	○						○		○			
돗토리현	○						○		○			
시마네현	○						○		○			
오카야마현	○						○		○			
히로시마현	○						○					
야마구치현	○					○	○		○			
토쿠시마현	○						○		○			
카가와현	○	○			○		○		○			○
에히메현	○					○	○		○			
고치현	○						○		○			
후쿠오카현	○	○					○		○			
사가현	○				○		○	○	○			
나가사키현	○	○		○			○		○			
쿠마모토현	○	○		○			○	○	○			
오이타현	○			○			○		○			
미야자키 현	○	○		○			○		○	○		
가고시마현	○	○					○		○			
오키나와현	○			○			○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지역 추진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꽃 전시회와 플라워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수상작들이 타 지역 꽃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써 국내 홍보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화훼에 대한 개인 소비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나아가 아이치 현 등 국제 박람회 경험이 많은 지역은 광역 꽃 전시회 개최를 통해

재배 경험과 신기술, 노하우 등을 전달함으로써 일본 화훼산업 전체가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표 3> 2016년 지역별 특징적인 사업추진 사례 (세부)

지역별 추진사례	
홋카이도	타 산지와의 연계 출하를 위한 기술 교류회 개최
아오모리현	꽃다발용 꽃 생산·유통 체제 재정비, 유치원이나 복지 시설의 꽃 기르기 체험의 실시
이와테현	올림픽 개최 중 현에서 생산한 꽃으로 환영 장식, PR, 부케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물류 효율화
미야기현	꽃 기르기 교실·꽃 기르기 이동 교실 실시, 원예 시설 재활용 시스템의 재정비
아키타현	타 산지와의 기술 교류회의 개최, 플라워 콘테스트 개최, 수출국에서 PR 및 이벤트 개최
야마가타현	수출에 적절한 품질 유지 대책 마련, 병해충 대책 마련, 대표품종 전시회 개최
후쿠시마현	플라워 콘테스트, 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교실 운영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꽃 축제 개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토치기현	유치원, 초중등학교 꽃꽂이 체험 실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군마현	플라워 디자인 사례 콘테스트 개최, 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사이타마현	유치원, 초중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지바현	식목 전통 수예 기술 등 실연 및 전시, 나리타공항에서 현에서 생산한 꽃 PR전시
도쿄도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기업 및 요양보호시설 플라워 인테리어 추진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현 화훼 전람회 개최, 꽃 전시회, 복지 시설에서 원예 체험 실시
야마나시현	초등학교에서 꽃꽂이, 컨테이너 가든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가노현	국제 플라워 포럼 2016에서 홍보 세미나 개최, 안탈리아 국제 원예 박람회 출전
시즈오카현	기업 및 요양보호시설 플라워인테리어 우수사례 표창, 복지시설 꽃꽂이 체험교실 개최
니가타현	수출전략 마련, 스포츠대회 빅토리 부케를 현에서 생산한 꽃으로 전시
토야마현	시내 현 생산 품종 PR전시, 초등학생 대상 꽃꽂이 교육 실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마라톤 2016에서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탁아소 등에서 꽃꽂이 교육 실시
후쿠이현	유통 거점 조사 전면실시, 학교 등 꽃꽂이 교육 실시
기후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교육 실시
아이치현	화분 폐용토의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미에현	고속도로 꽃 장식,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시가현	현산 꽃의 품종 전시 및 품평회의 개최, 플라워 어렌지먼트 교실 등의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교토부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화단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오사카부	꽃 전시회 개최, 학교 및 요양보호시설 꽃꽂이 교육 실시
효고현	플라워 콘테스트 개최,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라현	나무심기, 화분내기 등 콘테스트 실시, 초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분재 등의 소독 방법 개선
와카야마현	꽃 전시회 개최, 현 생산 화훼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에서 꽃꽂이 체험 실시

(계속)

지역별 추진사례	
돗토리현	길거리 꽃 심기 교실, 화훼 연구자 및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시마네현	꽃 전시회 개최, 화훼 업계 기념일 지정, 관련 행사 개최
오카야마현	주택 전시장에서 꽃 전시, 화훼 소비 및 유통에 관한 세미나 개최
히로시마현	요양복지시설 꽃꽂이,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야마구치현	화분 용토 재활용 시스템 개선, 꽃 기르기 체험 실시
토쿠시마현	현 생산 꽃나무의 품평회, 초등학교에서 길거리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카가와현	물류 효율화 방안 마련, 고교생 꽃꽂이 컨테스트 개최, 수출 확대를 향한 분재 소독 방법 개선
에히메현	재활용 시스템 개선, 초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고치현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체험, 관광시설에서의 웰컴 플라워 전시 및 홍보
후쿠오카현	상하이 꽃꽂이 워크숍 개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사가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나 복지 시설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가사키현	수출처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학교, 복지시설에서 꽃꽂이 체험 실시
쿠마모토현	현 생산 꽃나무를 이용한 꽃 인테리어 체험 실시
오이타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체험 실시, 미국 시장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미야자키현	타 산지와의 기술 교류회 개최, 유럽, 북미 시장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꽃꽂이 체험 실시
카고시마현	학교, 복지시설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오키나와현	수출 시장조사 및 수출전략 마련, 학교, 복지시설 꽃 기르기 교육 실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표 2>와 <표 3>의 일본 내 지역 추진사업 중 단연 대표적인 사례는 아오모리 현과 아이치 현일 것이다. 아오모리 현은 일본 내 화훼 유통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관상용, 교육용 꽃의 생산·유통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매, 농가 직거래 등의 효율화에 기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이치 현은 세계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산 화훼의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꽃 기르기 체험을 확대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든 꽃, 포장 자재 등의 낭비 방지, 재활용에 주목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는 국산 화훼 혁신사업이 지방 곳곳에서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중앙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원 하에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점, 큰 예산 투입이 아니어도 학교나 요양보호시설, 기업, 공공시설 등에 홍보와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꽃을 문화로서 전파하고 간접적이나마 수요를 확대하고자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노력한다는 점 등이 있다. 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3.2.1. 대표사례 1: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 현에서는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살려 여름과 가을을 중심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오모리 현의 대표적인 품종은 국화, 장미 등이 있다. 아오모리 현은 2008년도까지는 현 지방정부에서, 2009년도부터는 지방 독립행정법인인 아오모리 현 산업기술센터 농림종합연구소 화훼 부를 설립하여 아오모리 현 고유 품종의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비꽃 품종의 개량을 통해 관상용 꽃, 장식, 꽃꽂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현에서는 지역 농림수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2014년에 '아오모리 현 화훼 진흥 방안'을 개정한 바 있다. 현에서 가장 생산자가 많고 생산면적이 넓은 국화, 터키 도라지 등 2종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을 진흥 품목으로 지정해 생산과 유통체계의 최적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수립하고 있는 '화훼산업과 화훼 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오모리 현은 꽃 기르기(花育)[3] 캠페인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꽃과 자연 친화적인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친숙한 자연, 치유의 자연 등을 키워드로 많은 시민들에게 꽃과 나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꽃 기르기를 통해 지역안의 세대 교류, 지역간 협력 교류를 연계하고 있으며 현 정부 화단 꾸미기 등 캠페인 성 시책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3) 일본에서는 꽃 기르기를 '花育: 꽃과 자연에 친숙 성장 기회를 통해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유 개념으로 전파하여 꽃 문화 행사 등의 모토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3> 아오모리현 화훼 대표 품종

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화, 터키 도라지, 장미, 알스트로메리아 순.
자료: 일본 아오모리 현(2019).

아오모리 현은 생산 재배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역과 국내외 화훼 생산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아오모리 꽃 축제'를 매년 여름 개최한다. '아오모리 꽃 축제'는 관상용 대표 품종의 홍보뿐만 아니라, 세대가 어우러지는 꽃 기르기 활동, 꽃꽂이 교실, 출품 작품의 모의경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아오모리현 '꽃의 나라 만들기 추진 협의회' 주관 하에 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3.2.2. 대표사례 2: 아이치 현

아이치 현은 1962년 이후 일본 최대 화훼생산지역이다. '꽃의 왕국 아이치현 수요확대 추진사업'은 아이치 현 화훼 생산자 단체인 실행위원회를 필두로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좋은 화훼 소비를 위해 2013년에 꽃 기르기 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꽃과 자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평소 꽃 기르기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꽃 기르기에 관심이 있어 일정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이 꽃 기르기 교사로 등록되고, 유치원, 학교나 기업 등의 꽃 기르기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도 사설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숲 해설 전문가 인증제도'가 있지만, 꽃 기르기, 화분내기 등을 가르쳐주고 집이나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무심기, 꽃 기르기를 실천하도록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기준 아이치 현의 꽃 기르기 교사 등록 현황은 약 2,800여명으로 활동성과에 대한 현 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치 현은 인증된 꽃 기르기 교사의 활동들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타 지역 및 국내외 꽃 축제 등에서 이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3.3. 화훼산업 진흥 조사

화훼산업 진흥 조사는 도도부현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에 대하여 재배면적, 출하 수량, 산출액 및 재배 농가의 수 등 통계 현황을 제공한다.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화목류를 포함한 꽃꽂이 산업의 실태를 제시하여 제반정책의 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산지의 육성, 근대적인 생산·출하 체제의 확립 등 산지의 상황에 맞는 섬세한 산업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통계를 신뢰성 있게 쌓아나가고 있으며 여타 국가통계와 같이 조사상 주요 개념의 기본 정의,[4] 취급 및 해석 시 주의점 등을 제공해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언론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조사는 전국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 또는 연말 기준의 현황으로 연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99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훼재배현황'을 작성·공개하고 있다. '화훼재배현황' 통계 또한 매년 화훼류 농가, 재배 및 생산현황, 판매 현황 등을 읍·면·동 기준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도 단위로 종합하여 작성한다.

---

4) 조사 상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아래와 같음(일부 예시).
- 화목류란 관상용 수목(버섯 포함)을 의미함.
- 묘목은 번식 시점에 비해 대략 2년 미만의 것으로 조원용, 분재용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양성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성목이란 대략 2년 이상의 것으로 절가지용의 성목은 제외함.
- 잔디는 조원용, 토목용 또는 골프장 및 운동장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양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지피식물류는 성장과 함께 면적을 넓혀가며 땅이나 벽면을 덮어 나가는 식물로 본 조사의 개념에서는 잔디류와 구분하고 있음.
- 산출액은 최종 생산물의 품목별 생산량에 품목마다의 선 판매 평균가격을 곱해 합계한 금액을 의미함.
- 재배 농가는 해당하는 종류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 경영 경지 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50만 엔 이상인 농가를 추산하고 있으며, 협업 경영체, 주식회사, 유한 회사, 기타 회사, 농협, 기타 농업단체에서 법인격등 가구 외의 농업사업체를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3.4. 화훼물류 시스템 고도화·전환 실증지원 사업

화훼물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일본 식품유통 합리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산지,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많은 관계자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유통에 이용하는 차량을 통일하고 공동 출하 수송 유통시스템 전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통에 이용하는 차량을 통일하는 것은 유통 체계 전반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필히 선행되어야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스템을 생산자 또는 생산농가와 협력구조를 가진 일부 유통업체와 차량이 배달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유통 차량 및 시설 낙후, 유통 단가의 상승 등으로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은 생산지역 주변에서 선택 가능한 유통 인프라를 선택해 차량을 배치하고 해당 차량이 배달하는 구조를 만들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 동 고도화 사업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웹 거래의 실시간 지원 또한 가능하다. 출하량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시간대를 분산하고, 가용 자원을 재배치하여 구매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화훼의 모양, 색깔에 손실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화훼 기술개발 진흥정책

일본 화훼의 우수품종은 네덜란드의 국제 원예 박람회 품종 콘테스트에서 해마다 최고 점수를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유통마진이 매우 저렴한 외국산 화훼의 수입이 증가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국내 수요의 증대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일본산 꽃의 생산·공급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이나 수요 확대를 위해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국가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한다.

4.1. 제5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일본의 과학기술 종합전략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국가적 과학기술 전략을 총망라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의 로드맵이자 총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2015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5기 종합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이노베이션 창출 기반의 강화,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에 의한 사회 견인,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 기능의 최적화, 4)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가 그것이다.

그 중 종합전략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분야 중 하나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활용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이 선정되었다. 도쿄 올림픽을 쇼 케이스로 활용하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국내 산업의 세계 전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2020년 이후에도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아쇠 역할로 이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정책분야로 선정된 후 일본 문부과학성 및 관계부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회를 향한 9가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도모할 것을 확정했다. 9가지 프로젝트는 '스마트 호스피텔리티', 감염 증세 감시 강화, 사회 참가 지원 시스템,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 수소 에너지 시스템,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의 사전 예측, 이동 최적화 시스템, 새로운 체험 영상 시스템, 그리고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이다.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Flower Innovation 2020)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여름에도 시들지 않고 아름다운 일본산 꽃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시내 곳곳을 꾸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명에도 훼손되지 않는 꽃잎, 적정량의 영양제 투입 및 지속 기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활용해 생물 및 화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도쿄의 주요 경기장 및 도로, 공항 등의 현지 상태를 파악하고 보다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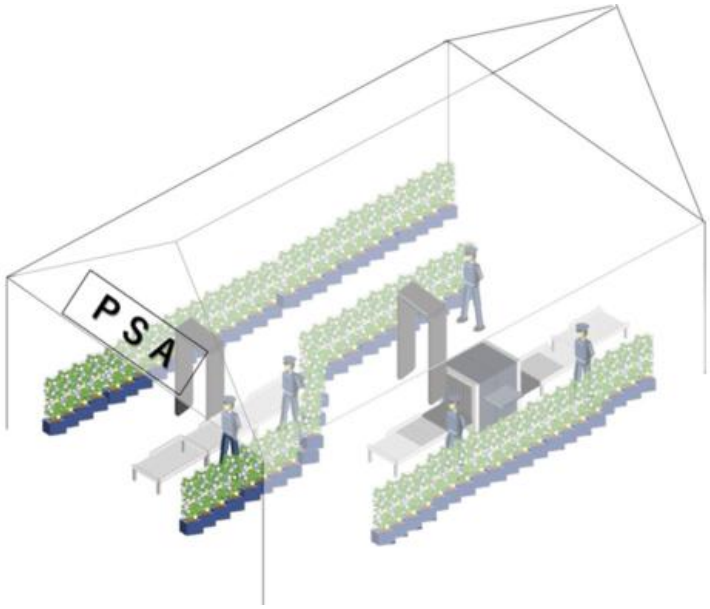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도쿄올림픽사이트(https://tokyo2020.org/en/news/notice/20190618-01.html, 검색일: 2020.1.3.).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화훼 생산 농가와 화훼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일본의 고품질인 화훼를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생산 및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의 스트레스 경감, 피로 회복 효과를 기대하며 회장이나 선수촌 등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꽃으로 거리나 회장을 물색하고 '일본다움'으로 연출된 인상적인 대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오래가는 국산 꽃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련 품종과 기술의 대표사례를 사전에 국내외로 널리 홍보한다. 더불어 대회 의전용 꽃으로는 시각적으로 화려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치유효과가 있는 품종 및 품목을 선택해 공항, 도시 입구, 고속도로 등에 배치한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국내 타 지역에 전파함으로써, 국내 화훼산업의 진흥을 함께 도모한다.

우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하고자 주력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지 품종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기로 유명한 '달리아' 계통의 품종을 색채, 크기 등 계량하여 일조량이 많고 맑은 도쿄의 날씨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더운 여름에도 꽃잎이 살아있는 생산기술이다. 온실 내에서 온도와 습도관리에 따라 꽃잎이 변화하는 것을 수년간 관찰하고 실험하여 덥고 습한 일본의 여름을 꽃과 나무가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품종 계량 및 영양분 배합물을 투여한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화단 관리기술 등도 개발 중이다. 마지막으로 꽃이 피어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품질 유지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2주간 개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카네이션을 개발하는 실험을 통해 개화를 억제하고 적정 시기에 개화해서 최고의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은 이미 높은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림 5> 도쿄올림픽 경기장 일본산 화훼 배치도 (예시)



자료: 도쿄올림픽 사이트(https://tokyo2020.org/en/news/notice/20190618-01.html, 검색일: 2020.1.3.).

여름철 꽃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도쿄와 일본에서는 여름철에도 아름다운 빛깔의 꽃과 나무로 거리를 꾸밀 수 있다. 더불어 치유 효과를 주는 꽃과 나무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부터 올림픽을 보기 위해 일본을 찾는 국내외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개념으로 '스마트 호스피텔리티'와 '재팬 플라워 프로젝트'의 협력을 기대한다. 아름다고 편안한 환경에서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을 즐기고자 함이다.

이러한 선진기술이 생산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생산에 활용되면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질 경기장 주변이나 공원 등 일반 공공시설에서 조경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름에도 지지 않는 꽃(나쯔바나)'을 모토로 하며 관계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해 경기장 주변의 시설 관리자 등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 경기장 설치를 더욱 가속화했다. 그리고 제휴기관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식품산업 기술 종합 연구기구를 대표로하는 관련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직 하에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고민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점이다.

4.2. 농업 연구소기구 화훼 연구소

‘농업 연구소기구 화훼 연구소’는 2016년 4월1일부터 농업 연구소기구 야채·화훼 연구부서로 편입되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산화탄소 조절 기술을 통해 난지 터키 도라지꽃을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 가능하도록 했고, 2017년에는 피튜니아 신품종 ‘블루문’의 향기를 극대화하는 실험, 파란 국화 꽃 품종 생산, 나뭇잎이나 꽃잎의 엽록소 분해에 관여하는 영양성분 최적화 실험, 국화 품종의 유전자 특성을 알아내 고품질의 개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발현유전자(Expressed Sequenced Tag, EST) 분석 등에 성공하여 국내외 홍보 및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실험은 현재 일부 품종에 한정되어 있지만 더욱 널리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에 대한 실험을 거쳐 기술의 신뢰성이 실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연구소기구 야채·화훼 연구부서는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하에 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생산농가, 지방정부,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이 함께하는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의 보급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4.3. 화훼 기술 및 경영 우수사례 콩쿠르

일반 재단법인 ‘일본 꽃 보급 센터’는 농림수산성 후원, 사단법인 일본 화훼생산협회, 일본 화훼도매시장협회, 전국농업개량 보급지원협회 협찬으로 화훼 생산 기술 및 경영의 우수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매해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이 표창의 수상자격은 우선 노지 화훼 생산농가(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1ha 이상, 시설 화훼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50ha 이상인 화훼 생산 농가 중 추천을 통해 예비심사 대상이 선정된다. 이 중 일본 꽃 보급센터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및 업계 관계자 등의 본 심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농가(개인)가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이 대회는 일본의 농림 수산 축제로서, 본 표창은 농림수산대신이 수여하는 표창이며, 다음 연도의 천황배 총리 표창 후보로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훼생산 기술 및 경영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로 표창 받은 농가나 개인은 국제 정원 박람회 등에 출품 또는 참여자격을 가지게 된다.

5. 정책제언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훼산업은 전반적인 경제 위축, 인구 고령화 등으로 줄어드는 수요, 올라가는 생산 및 유통 단가 등으로 산업 전체가 감소세를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보조금 등 제반 정책 정비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화훼산업은 벼농사에 비해 젊은 농업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일본은 이런 점에서 화훼산업을 다시 부흥하고자 다양한 진흥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꽃과 나무에 대한 수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플라워 인테리어,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등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꽃과 나무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꽃과 나무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소비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꽃 전시회에서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 이상으로 꽃의 효용성, 꽃 기르기의 치유효과 등을 적극 홍보한다. 꽃과 나무의 심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 직접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농업연구소기구 등은 실험 등을 통해 덥고 습한 날씨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원한다.

일본의 사례는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우선 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화훼산업에 대하여 단순히 농업정책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R&D, 문화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수요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화훼산업은 심리적 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꽃과 나무가 실제 생산되는 지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예산, 통계 등 정보지원,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세한 활동 등을 연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화훼산업도 염가의 수입산 꽃과 나무로 인해 국내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보조금 등 예산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8 화훼 재배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동향 – 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17호. 미래창조과학부.

일본 농림수산성. 2018. 国産花きイノベーション推進事業」地区推進事業の取組状況について. (http://www.maff.go.jp/j/seisan/kaki/flower/28tiku_torikumi.html) (검색일: 2019.10.12.)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 2019. Flower Innovation 2020 ジャパンフラワープロジェクト.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

Kati. 2018. 「농·식품 수출정보 – 일본 화훼산업 동향」.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7661&menu_dept2=35&menu_dept3=71) (검색일: 2019.10.12.)

참고사이트

도쿄 올림픽 (https://tokyo2020.org)

일본 아오모리현 'あおもりの花き' (https://www.pref.aomori.lg.jp/sangyo/agri/nosanhana.html)

일본 농림수산성 '花き振興コーナー' (http://www.maff.go.jp/j/seisan/kaki/flower/)